

〈비정규직 보호법과 일자리 창출〉

◆ 목차

1. 검토 배경

2. 비정규직 법 시행과 노동시장의 반응

- 종사상 지위별 취업 변동
-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의 변화
- 1년 미만 근속자로 본 사업체 규모별 신규 채용의 변화
- 1년 이상 근속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 변화
- 취업으로의 유입 감소에 따른 고용성과의 부진

3. 요약 및 시사점

1. 검토 배경

- 2007년(1~11월) 일자리 증가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83천명에 그쳐, 일자리 창출 규모가 3년째 30만 명을 하회하는 부진을 기록.
- 비정규직 보호법이 고용 성과의 부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기업규모별 고용형태 및 신규 채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반응을 분석함.

2. 비정규직 법 시행과 노동시장의 반응

□ 종사상 지위별 취업 변동

- 최근 일자리 증가 부진은 2003년부터 시작된 자영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기인함.
 - 2007년(1~11월) 임금근로자는 424천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상용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종사상 지위별로 본 고용의 질은 개선되는 조짐을 보임.

〈표 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단위 : 천명, 전년 동기 대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6. 1~11	2007 1~11
전체	597	-30	418	299	295	295	283
임금근로자	522	221	492	291	365	358	423
상용	148	407	356	293	287	280	417
임시	160	118	78	-26	87	87	37
일용	215	-303	58	25	-9	-9	-31
비임금근로자	75	-252	-73	8	-71	-63	-140
고용주	63	12	50	-15	-32	-29	-70
자영자	77	-161	17	77	-6	-2	-14
무급가족종사자	-66	-103	-141	-55	-33	-31	-5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의 변화

- 비정규직 법 시행대상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은 거의 변화가 없음.
- 2008년 7월부터 비정규직 법이 시행될 100~299인 기업에서는 정규직과 임금 근로자가 소폭 감소함.
 - 그러나 비정규직 법 시행을 1년 남긴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소폭 증가함
- 비정규직 증가는 100인 미만 기업에서 주도함.
 - 100인 미만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245.4천명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성 또한 크게 변화함
 - 기간제 근로는 197.1천명 감소하였으며, 일일근로 178.8천명, 용역근로 100.2천명, 계약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 71.5천명, 시간제 근로 68.0천명, 파견 근로 44.2천명 등이 증가함.

〈표 3〉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추이

(단위 : 천명, %)

	2006.8			2007.8			증감		
	1-99	100-299	300-	1-99	100-299	300-	1-99	100-299	300-
<임금근로자>	11,950.7	1,560.4	1,839.9	12,513.4	1,535.4	1,833.4	562.7	-24.9	-6.6
정규직	7,295.0	1,128.2	1,471.2	7,612.3	1,091.5	1,475.8	317.3	-36.7	4.6
비정규직	4,655.7	432.1	368.7	4,901.1	443.9	357.6	245.4	11.8	-11.2
-한시적근로	2,938.8	353.2	334.4	2,838.3	383.0	325.0	-100.5	29.8	-9.3
(기간제)	2,191.8	276.5	253.2	1,994.7	285.4	251.1	-197.1	8.9	-2.1
(계약 반복갱신)	334.0	60.7	70.7	405.6	79.2	70.5	71.5	18.5	-0.2
(계속근무 기대불가)	412.9	16.0	10.4	438.0	18.4	3.5	25.1	2.4	-7.0
-시간제근로	1,065.4	36.3	33.4	1,133.4	37.7	30.3	68.0	1.4	-3.0
-비전형근로	1,784.0	105.0	44.1	2,077.9	88.8	41.7	293.9	-16.2	-2.4
(파견)	104.6	19.6	6.5	148.8	15.0	10.4	44.2	-4.6	4.0
(용역)	442.0	38.3	18.2	542.2	38.0	12.7	100.2	-0.2	-5.5
(특수근로형태)	564.7	36.3	16.0	592.9	28.8	13.3	28.2	-7.5	-2.6
(가정내)	171.3	3.0	0.8	122.5	0.6	1.8	-48.8	-2.4	0.9
(일일)	655.2	8.2	3.1	834.0	7.7	3.5	178.8	-0.6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 1년 미만 근속자로 본 사업체 규모별 신규 채용의 변화

- 1년 미만 근속한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을 통해 신규 채용시 근로형태별 활용도를 추론하고자 함.
 - 단, 취업한 지 1년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는 누락되는 한계가 있으며, 근속년수가 짧은 고용형태는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빈번한 노동이동을 경험함에 따라 신규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게 됨.
- 1년 이내에 신규 취업 정규직은 55천명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34천명의 소폭 증가
 - 비정규직의 구성을 보면, 기간제 근로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일일근로, 용역근로, 파견근로 등의 비전형 근로가 증가하였으며, 시간제 근로 또한 증가함
 - 이러한 비정규직 구성의 변화는 기간제 채용 감소라는 채용관행의 변화, 건설 일일근로의 증가와 같은 경기적 요인, 외주화에 따른 용역·파견 근로의 일부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근속 1년 미만 임금근로자는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증가한 반면 100~299인,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신규 채용 임금근로자는 소폭 감소함.
 - 100~299인 기업에서 신규 채용 규모는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함께 감소함.

〈표 4〉 사업체 규모별 1년 미만 근속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단위 : 천명, %)

	1-99			100-299			300-			계		
	2006.8	2007.8	증감	2006.8	2007.8	증감	2006.8	2007.8	증감	2006.8	2007.8	증감
임금근로자	5,460	5,529	(69)	413	341	-(72)	247	229	-(18)	6,120	6,099	-(21)
정규직	2,569	2,558	-(11)	231	189	-(42)	139	137	-(2)	2,938	2,883	-(55)
비정규직	2,891	2,971	(80)	182	152	-(30)	108	92	-(16)	3,182	3,216	(34)
한시적	1,716	1,516	-(200)	141	128	-(13)	94	77	-(17)	1,951	1,721	-(230)
기간제	1,346	1,121	-(225)	117	103	-(14)	77	67	-(10)	1,540	1,291	-(249)
계약 반복	96	101	(5)	12	13	(1)	8	9	(0)	116	123	(7)
단기 근무	274	294	(20)	12	12	(0)	9	2	-(7)	295	307	(13)
시간제	800	865	(65)	25	25	(0)	18	22	(3)	843	912	(68)
비전형	1,172	1,367	(195)	51	34	-(17)	19	17	-(2)	1,242	1,418	(176)
파견	54	75	(21)	11	5	-(6)	2	2	(0)	68	82	(15)
용역	230	264	(34)	17	15	-(2)	10	5	-(4)	256	285	(28)
특수근로	270	272	(2)	15	8	-(6)	5	6	(1)	290	286	-(3)
가정내	118	92	-(26)	1	0	-(1)	0	0	(0)	119	92	-(27)
일일	636	812	(176)	8	7	-(1)	3	4	(0)	648	823	(17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 1년 이상 근속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 변화

-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을 통해 재직근로자의 근로형태 변화를 추론하고자 함
- 전년 8월과 비교하여 근속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직(340.1천명) 증가 규모가 비정규직(149.4천명)을 상회
 - 비정규직의 구성을 보면,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의 증가(68.3천명)가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졌으며, 용역 근로(66.1천명), 기간제 근로(58.6천명), 파견 근로(28.9천명), 특수근로형태(21.3천명)의 순으로 증가함
 - 이는 한편으로 비기간제 한시적 근로로의 근로형태 전환과 함께 용역·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 1년 이상 근속자의 근로형태 변화도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주로 발생
 -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 변화는 거의 없음
 - 100~299인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규모는 소폭 증가함.

〈표 5〉 사업체 규모별 1년 이상 근속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단위 : 천명, %)

	1-99			100-299			300-			계		
	2006.8	2007.8	증감	2006.8	2007.8	증감	2006.8	2007.8	증감	2006.8	2007.8	증감
임금근로자	6,490	6,985	(495)	1,148	1,194	(46)	1,593	1,604	(11)	9,231	9,783	(552)
정규직	4,726	5,055	(329)	898	902	(4)	1,333	1,339	(6)	6,956	7,296	(340)
비정규직	1,764	1,930	(166)	250	292	(42)	261	265	(4)	2,275	2,487	(212)
한시적	1,223	1,322	(99)	212	255	(43)	241	248	(7)	1,676	1,825	(149)
기간제	846	873	(27)	159	182	(23)	177	185	(8)	1,182	1,240	(59)
계약 반복	238	304	(66)	49	66	(17)	62	62	(0)	349	432	(83)
단기 근무	139	144	(5)	4	6	(2)	2	1	-(1)	145	152	(8)
시간제	266	269	(3)	11	13	(2)	15	9	-(6)	292	290	-(2)
비전형	612	711	(99)	54	54	(0)	25	25	(0)	691	791	(100)
파견	50	74	(24)	8	10	(2)	4	8	(4)	63	92	(29)
용역	212	278	(66)	22	23	(1)	9	7	-(2)	242	308	(66)
특수근로	295	321	(26)	22	21	-(1)	11	8	-(3)	328	349	(21)
가정내	53	30	-(23)	2	1	-(1)	1	2	(1)	56	33	-(24)
일일	19	22	(3)	0	1	(1)	0	0	(0)	19	23	(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 취업으로의 유입 감소에 따른 고용성과의 부진

○ 취업 유출입으로 본 일자리의 동태적 변화 분석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할 수 있는 가구식별번호를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유입·유출을 분석
- 이전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였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이직월이 조사 전월인 경우를 ‘취업에서 유출’로 판별
- 임금근로자의 순변화 규모에서 취업 유출자 규모를 뺀 것을 취업으로의 유입 규모로 판별

- 2007년(1~11월) 임금근로자 증가 규모가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한 것은 취업으로의 유입 감소 규모에 비해 실직 규모의 감소 규모가 더 컸기 때문임.
 - 100인 미만 기업에서는 실직 규모는 감소한 반면 취업으로의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함.
 -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취업 유입 규모의 감소가 나타남. 100~299인 기업에서는 취업으로의 유입 증가폭이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취업 유입 규모가 감소함.

〈표 6〉 사업체 규모별 취업 유출·유입 규모(임금근로 기준, 월평균)

(단위 : 천명)

		2003	2004	2005	2006	2007 1~11
계	임금근로자 순변화	220.9	491.8	291.1	365.4	423.1
	취업 유출	574.0	563.6	554.5	547.8	514.4
	취업 유입	794.9	1055.4	845.6	913.2	937.5
1-99	임금근로자 순변화	-16.0	369.3	197.9	340.5	468.1
	취업 유출	525.8	514.1	507.5	500.8	468.8
	취업 유입	509.9	883.3	705.4	841.3	936.8
100-299	임금근로자 순변화	77.5	84.6	6.5	46.9	17.2
	취업 유출	25.2	27.8	27.7	26.4	27.2
	취업 유입	102.7	112.4	34.1	73.3	44.3
300-	임금근로자 순변화	159.4	38.0	86.8	-22.0	-62.1
	취업 유출	23.0	21.7	19.3	20.6	18.5
	취업 유입	182.4	59.7	106.0	-1.4	-43.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요약 및 시사점

- 비정규직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는 상용직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법 시행 대상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임금근로의 규모나 구성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비정규직 법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음.
 - 반면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의 변화는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함.
- 2008년 7월 비정규직 법이 시행될 100~299인 기업에서 임금근로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비정규직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는 소폭 증가하고,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따라서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를 계약해지, 간접고용으로의 전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의 반응이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1년 미만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의 규모가 감소하고, 취업으로의 유입 규모가 감소한 것은 신규 채용 규모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정규직의 신규 채용도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엄밀하게 판별하기는 어려움.
- 이용가능한 고용통계에서 비정규직 법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으나, 수익성의 장기 부진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향후 신규 채용 감소, 노동비용 상승 회피를 위해 비정규 근로자가 고용 불안에 직면하거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고용형태로 내몰릴 가능성은 있음.
 - 중소기업의 취약한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 및 이에 따라 실업 발생을 유발하는 기업에게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을 검토하며, 고용지원서비스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여야 할 것임.